

121주년

人 日 기 념



포덕 159(2018)년 12월 24일

< 순 >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인여물개벽설)
1. 천덕송 합창(기념송1-3)
1. 기 념 사
1. 포 상
1. 천덕송 합창(인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

※ 문화공연

- 식전공연(10:30) : 천도교연합합창단
- 식후공연 : 한열음(국악공연팀)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아 천도교 제 3세 교조가 되신지 제121주년이 되는 인일기념일입니다.

포덕38(1897)년 12월 24일, 해월신사께서는 여주 전거론에서 그때까지 의암성사 외에 구암 김연국, 송암 손천민과 함께 세 분의 공동지도체제로 이끌게 하였던 교단을 의암성사에게 일임하면서 “세 사람 가운데 의암을 주장으로 삼노라.” 하셨습니다. 이로써 해월신사께서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34년 동안 이끌어 오신 교단의 중임을 의암성사에게 전수하신 것입니다.

의암성사께서는 포덕23(1882)년 10월 5일 동학에 입도한 지 15년 만에 무극대도의 제3세 교조가 되시어, 수운대신사의 창도시대, 해월신사의 은도시대를 지나 동학 천도교의 꽃을 피우는 현도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해월신사를 보필하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의암성사께서 도통을 이어받으신 것은 성사의 선천적인 자질과 후천적인 정성, 그리고 시운의 흐름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암성사는 동학에 입도하신 후 주문을 매일 3만 독씩 외우는 독공수련을 3년 동안이나 계속하셨으며, 교단과 나라의 명운이 좌우되는 동학혁명에서도 역사의 거대한 격류에 맞서 과감히 정의와 개혁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또 갑진개화혁신운동 실패 이후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는 용단으로 위기를 기회로 돌이키셨으며, 10년을 절치부심한 끝에 민족사적으로나 세계 약소민족의 평화적 독립운동사에 금자탑이 되는 3·1운동을 영도하셨으니, 그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의암성사께서 무극대도를 책임지던 25년 동안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된 시대의 격변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세동점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난 뒤 제국주의 내부의 투쟁이 제1차 세계대전으

로 폭발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으며, 그 모순은 1940년대의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며 현대사의 굴곡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세계정세가 21세기에 접어든 오늘까지 도도한 흐름을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그러한 세계사의 격류에 휩쓸려 36년간의 식민치하에 이어 70여 년 동안 이어지는 분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2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식민과 분단의 질곡 속에서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과 문화발전을 이루어 냈으나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서 수많은 희생과 좌절 또한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천도교단은 시대의 고비마다 거듭하여 인적 물적인 희생을 겪으며 나날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교단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천도교가 표방하는바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지는 다시개벽의 동귀일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암성사의 승통기념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 교단이 처해 있는 내외적인 시대상황과 그리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명화,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세계의 변화가 의암성사의 혜안과 용단을 다시금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암성사께서 일찍이 삼전론에서 “방금 세계 문명은 실로 천지가 한 번 크게 변하는 첫 운수라. 먼저 깨닫는 그 곳에는 반드시 한울님의 돌보시는 기운이 응하리니, 부디 생각하여 천지가 감동하는 정신을 어기지 말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단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오랫동안 기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 이전에 우리 교단의 변곡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문명의 전환에 대응하는 다시개벽의 노정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3월 1일부터 동학농민혁명 첫 국가기념일인 5월 11일까지 70여 일은 ‘동학 천도교의 시간’으로 국내외에 자리매김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남북-북미관계도 다시 한 번 진

전과 심화를 이루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미년 3·1운동 당시 의암성사께서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금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뜻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면면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3·1운동은 민족의 통일일 것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전 세계의 생명문화 다시개벽시대, 한울문명 동키일체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이후 3·1운동 100주년까지 남은 3개월은 지난 3년간 교단의 책임을 맡아 온 집행부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독여서 새 시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듯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끝이 미덥지 못한 듯하여 마음으로 의심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암성사께서는 “적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룸은 물리의 자연한 이치이니, 물건이 적다고 버리지 말고 덕이 적다고 천히 여기지 말라. 일의 형편과 때를 따라

도를 쓰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정성이 아홉 길 조산하는 천도의 대업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대도중흥·중일변·민족통일”의 일대 슬로건과 안으로 “포덕 역량을 구축하고” 밖으로 “포덕 환경을 조성하며” 동귀일체 하여 “포덕광제를 실현한다”는 3대 실천방향 아래, 모두 21가지로 정리 하였던 실천과제들은 우리 시대 천도교의 과제와 비전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은 그 과제를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며, 비바람 맞으며 토양을 다지고 거름을 주어왔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암성사께서 도통을 전수받은 이래 교단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하여 포덕46(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시고, 와신상담하여 독립만세 준비에 매진하던 그때와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성사께서 그 과정에서의 모든 역경을 49일 기도와 교육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이겨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간단없이 대도중흥·중일변·민족통일을 위한 특별기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이제 이 유형의 개혁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혁하는 때이니라.” 하시고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라고 하셨습니다.

121년 전 오늘 의암성사께서는 교단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도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깜깜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한 줄기 빛을 보고, 깊은 좌절 속에서도 창창한 하늘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재사심정 해야 할 마음가짐도 바로 그날 그때 의암성사의 그 단심(丹心)일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력의 시대를 보내고 도의의 시대를 맞이할 때입니다. 각자위심의 문명을 종식하고 동귀일체의 문명을 펼칠 때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 선천문명의 흔적들을 온전히 씻어내 버리고 사인여천, 삼경사상의 후천문명을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의암성사 승통 제121주년을 맞이하며, 교인 개개인은 마음을 다하여, 기관은 기관대로 규모일치와 신앙통일의 법도에 따라 스스로를 개혁하고, 노고근면의 정성을 다하여 천도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포덕 159(2018)년 12월 24일

천도교 교령 이정희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쯔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쯔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득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틀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30장 인일기념가

오 늘 인 일 기 념 의 날 인 일 - 기 념 의 날

The first system of the hymn features a treble and bass staff in 4/4 time. The melody is written in the treble clef, and the accompaniment is in the bass clef. The lyrics are: 오 늘 인 일 기 념 의 날 인 일 - 기 념 의 날.

천 도 승 통 의 사 - 명 성 사 에 게 내 리 시 니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천 도 승 통 의 사 - 명 성 사 에 게 내 리 시 니.

아 동 방 하 늘 영 롱 히 개 이 어 후 - 천 - 개 벽 에

The third system continues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아 동 방 하 늘 영 롱 히 개 이 어 후 - 천 - 개 벽 에.

현 - 도 의 이 아 침 이 르 도 다

The fourth system concludes the hymn with the final melody and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현 - 도 의 이 아 침 이 르 도 다.

창 생 들 아 다 같 이 이 - 날 을 즐 기 세 성 사 의

높 으 신 덕 길 이 빛 날 이 아 침

人與物開關說(인여물개벽설)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 두 조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나라.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나라.

그러나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알 지 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천하 일만 생각이 전혀 한 몸에 있으니, 앞의 물결이 겨우 쉬면 뒤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 생각이 어느 때에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끊으려고 불가능의 심력을 공연히 허비치 말고, 다만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굴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하는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래도록 습성을 지니면, 성품과 몸 두 가지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을 스스로 깨달게 될 것이니, 이 깨달음이 곧 육신을 개벽하는 것이 나라.

이 생각을 한번 개혁하면, 이에 희고 흰 얼음과 눈의 깨끗함과 한울이 개이고 날이 밝은 광명과 산이 높고 물의 흐름이 방정함과 뜻이 크고 뛰어난 운학의 고상한 그것이 곧 참된 정신의 나이니, 이 나는 한울이 기울어지고 땅이 터지더라도 길이 이와 같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 이 미욱하고 미욱한 세계를 돌아보고 개혁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우리 대신사를 보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신가.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일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어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 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마는 하루밤 지나면 산에 가득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맞은 잎 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혁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혁하는 때이니라.

의암성사 약전(略傳)

의암성사(義菴聖師)의 이름은 손병희(孫秉熙)이다. 의암성사는 포덕 2년(1861)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나시어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새로운 세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도라는 말을 듣고는 포덕 23년(1882)에 입도하셨다.

입도 이후 의암성사는 호방했던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주문 21자를 매일 3만 독(讀)씩 읽고 외우며 지극한 수련에 임하셨다. 또 주문을 읽는 틈틈이 매일 짚신을 두 켤레씩을 삼아 5일마다 열리는 청주장에 나가 팔아 호구지책을 삼았다. 이와 같은 생활을 3년간이나 계속하며 도의 기본을 이룬 이후에는 해월신사를 모시고 공주 가섭사(伽葉寺), 익산 사자암(獅子庵), 풍천 용문사 등에서 독공(篤工) 수련을 계속하시었다. 이러한 지극한 종교적인 수행은 평생에 걸친 의암성사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학혁명 당시 의암성사는 동학군의 통령(統領)으로 진두지휘를 하며 전봉준과 함께 공주 우금치전투 등에서 큰 활약하시었다. 이후 해월신사를 모시고 관의 추적을 피해 원주, 여주 등지를 전전하시던 중 37세가 되던 포덕 38(1897)년 12월 24일 해월신사로부터 도통(道統)을 전수받고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시었다.

종통을 이어받은 의암성사는 교단을 재수습하는 한편 세계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지사(志士)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또 교인 수습책을 강구하셨다. 이때에 의암성사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교인 청년 중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일본에 유학을 시키는 등 꾸준하게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

포덕 45년(1904)에 러일전쟁이 발발할 기미가 보이자 진보회(進步會)를 조직, 교인들을 규합하는 한편, 이해 8월에 전국의 동학 도인으로 하여금 일제히 머리를 깎고 옷을 간편하게 하는(斷髮黑衣) 등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기우는 국운(國運)을 혁신하고자 갑진

개혁과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포덕 46년(1905)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동학은 은도(隱道) 시대를 벗어나 현도(顯道) 시대를 맞이하였다. 의암성사는 포덕 47년(1906) 1월 귀국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또 각 군에 교구를 설치하여 근대적 종교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출발을 전개하였다.

포덕 51년(1910)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나라는 식민지시기에 들어선다. 의암성사는 우이동에 봉황각(鳳凰閣)을 짓고 전국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일곱 번에 걸쳐 이신환성(以身換性)의 법설과 함께 49일 수련을 실시하여 신앙통일, 규모일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련은 곧 정신력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뒷날 일어나게 되는 3·1 독립운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의암성사는 이미 10년 가까운 기간을 3·1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준비를 하셨다. 그리하여 포덕 60년(1919) 1월 5일을 기해 전국 교인들에게 일제히 49일 특별기도를 명하여 3·1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정신무장을 시킨 후 3월 1일 거족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3·1 독립운동 이후 일제에 의하여 구금된 의암성사는 옥중에서 고문으로 병환을 얻게 되어 이후 병보석으로 출감하였으나 그 병세가 악화되어 포덕 63년(1922) 상춘원(常春園)에서 환원(還元)하셨다. 수운대신사, 해월신사와 마찬가지로 의암성사 역시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을 위하여 혼신의 정성과 힘을 다하다가 장엄하게 순도(殉道)하신 것이다. 향년 62세이셨다. 의암성사께서는 <무체법경><후경>(1,2)<십삼관법><각세진경><명심장><천도태원경> <대종정의><수수명실록><명리전><삼전론><이신환성설>(1,2)<성령출세설><법문> <무하설> <인여물개벽설><입진경><우후청산><아지정신><삼화일목><권도문><강론경의><위생보호장><천도교와 신종교><신앙통일과 규모일치><원자분자설><몽중문답가><무하사><강서> <시문><기타시문><기타> 등의 법설을 남기셨다.